| 특별 기고 |

김성동, 눈물로 쓴 현대사

안재성
소설가



9월 25일 '만다라' 김성동 작가 별세
농민운동 매진하던 중 행방불명된 부친
선친 그리움에 유독 눈물 많았던 선생
75년 그의 삶은 현대사 상처 극복 시간
질곡 가족사는 김성동 문학 本末이었다

후배들과 술자리서 본인 출가담 이야기
파문됐지만 선생은 늘 수행자로 살았다
자신의 집 앞 돌에 새겨놓은 '非寺蘭也'
본인의 삶이 곧 '수행의 길'임을 보여줘

9월 25일 유명을 달리한 김성동 선생은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 중 가장 눈물이 많았다. 이유는 대개 선친 때문이었다. 술자리에서 선친 김봉한 선생과 그 동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날은 거의 어김없이 눈물을 쏟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만나 그 분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는 것이다. 내가 선생과 만난 이유가 바로 그분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이었으니 말이다.

외로워서 우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양평 우벚고개 험한 산중에 살 때 그랬다. 나와 후배들이 긴 술자리에 지쳐 일어서려면 몇 번이나 붙잡다 못해 헤어지는 현관 앞에서 기어이 눈물을 쏟았다. 거의 매번 그랬다. 양평 용문사 앞으로 이사를 하고는 한결 나아졌고, 우리의 권유에 따라 충주로 오신 후로는 김인국 신부와 임종헌 한의사가 더없이 따뜻한 벗이 되어 눈물 흘릴 기회를 주지 않았으니 생애 마지막 한 해는 참으로 행복하고 의욕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다행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더욱 안타깝다.

선생의 75년 생애는 불행했던 우리 역사가 준 상처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쳤던 힘겨운 시간이었다. 식민지 시대 대일투쟁으로 시작해 해방 후에는 농민운동을 하다가 경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아버지, 남편과 뜻을 함께했다가 두 차례에 걸쳐 긴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김성동 문학의 시작이요, 끝이었다.

선생의 생애 후반기 18년 간, 가장 가까운 문학의 후배이자 말벗으로 살아온 내게도 고스란히 전달된 선생의 아픔을 이 짧은 지면에서 어떻게 다 말할 수 있을런가?

김성동 선생은 나와 후배들을 만나기만 하면 5시간이든 10시간이든 쉬지 않고 사회주의 항일운동가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가끔은 본인 이야기도 했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은 이야기, 젊은 수행자로서 고민했던 이야기, 또 이를 소설로 써서 작가가 된 과정, 그 소설 때문에 승적도 없던 조계종에서 파문당한 이야기도 여러 번 했다.

비록 절에서는 쫓겨났지만, 작가가 되어 많은 사람의 사랑도 받았지만, 선생은 여전히 수행자였다. 선생은 이사를 간 집마다 제일 볕이 잘 드는 실내에 뭉툭하니 못생긴 돌덩이를 모셨는데, 미완성인채로 버려져 땅에 파묻혀 있다가 장맛비에 드러난 돌부처였다. 양평 산중에 살 때는 대문 옆에 세워진 돌에 이렇게 새겨 놓았다.

'비사란야(非寺蘭也).' 절 아닌 절이란 뜻이니, 본인의 삶 그 자체가 수행의 길이었음을 말해준다. 선생의 이름을 문단에 알린 소설 '만다라'는 한국 구도소설의 백미(白眉)로, 구도자로서 선생의 면모를 알 수 있게 한다.

'만다라'는 출가한 지 6년째 '병 속의 새'라는 화두를 풀지 못하던 수좌 법운 스님이 지산이라는 파계승을 만난 뒤 수도 생활에 변화를 맞는 과정을 그렸다. 파계승 지산은 술과 여자를 가리지 않을 뿐 아니라 거침없는 언동을 일삼는다.

하지만, 상식을 깨는 지산의 언동에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힘이 깃들어 있다. 법운은 지산의 영향을 받아 그동안 얽매여 있던 이분법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소설은 두 승려의 방황을 통해 불교계의 모순과 인간의 위선을 드러내며, 개인의 자유와 해탈의 의미를 묻는다. 어찌보면 한국전쟁 중 처형된 아버지를 둔 법운은 선생의 분신일 수도 있겠다.

성정이 올곧아 불의를 참지 못한 부모를 만난 죄로 평생을 통한에서 벗어날 수 없던, 본인 역시 세속의 더러움을 참지 못해 쓴 소리 바른 소리만 하다 외롭게 살아야 했던 김성동 선생이 부디 정의로운 새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외롭지 않게 사시기를 빈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한라산과 노인성

찬바람이 분다. 숲이 아름다운 길을 열어 놓았다. 무채색 억새의 물결을 따라 산길을 오르다 보면 유채색 화장세계 영실이 나온다. 바위와 나무들과 계곡의 물이 어우러져 세상을 장엄하고 있다. 그곳에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오백아라한이 머무는 아란야 존자암이 있다.

홍유손의 〈소총유고〉 '존자암개구유인문'에 의하면 "존자암은 삼성(三姓)이 처음 일어설 때부터 비롯되었으며, 이는 삼읍(三邑)이 정립된 이후에도 오래도록 전해져 왔다"고 했다.

한반도에서 산천 숭배 사상은 일찍부터 발달했다. 더욱이 나말여초에는 산천의 부족한 기운을 보강하여 국가와 백성의 안녕과 복리를 기원하는 비보신앙이 크게 발달하였다. 한라에는 비보사찰로 법화사, 수정사, 원당사(불탑사) 그리고 존자암이 있었다. 특히 존자암은 조선의 불교탄압 이후에도 오래도록 '국성제(國成祭)'를 지내왔다. 이에 조선시대에는 중앙에서 파견된 목사나 어사들은 이곳에 들러 백록담에 올라 제를 지냈다.

한라산은 전설상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예로부터 부악(釜嶽)·원산(圓山)·진산(鎭山)·선산(仙山)·두무악(頭無嶽)·영주산瀛洲山)·부라산(浮羅山)·혈망봉(穴望峰)·여장군(女將軍) 등 많은 이름으로 불려 왔다. 이름에서 한(漢)은 은하수를 뜻한다.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한라산 영실의 존자암에서는 노인성(老人星)을 볼 수 있다. 노인성은 남극성(南極星)·수성(壽星)·수노인(壽老人)·남극노인 등의 별칭이 있는 별이다. 또 이 별은 북극성에 대칭되는 천구의 남극에 존재하는 항성이다. 〈사기〉 천관서(天官書)에 춘분과 추분에 이 별을 볼 수 있으면 나라가 편안해지고 군주의 수명이 연장되는 반면, 보이지 않으면 전란이 일어난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추분 새벽과 춘분 저녁 때 남교(南郊)에서 그 출현을 기다렸다. 이 별을 남두(南斗)라고 칭하고 경배대상으로 삼아 기복을 축원한다. 이 신앙은 북의 북두(北斗)와 대칭되는 남의 칠성 신앙이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담아 수많은 시인 묵객들은 노래를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를 소개한다.

연하 덮힌 골짜기 오백 바위 /기묘한 모습이 예사롭지 않네/ 스님이 탑에 기대어 구름을 보는 듯 /요대에서 신선이 달빛 소매로 춤을 추는 듯/ 한나라 나그네 황하 근원을 찾다가 북두를 범하고 /진나라 아이들 바다를 보며 배를 멈추지 못했네/ 장군들은 하늘의 기밀 샐까 두려워 /신령한 곳 굳게 지켜 입을 다물었다

이 시는 추사 김정희에게 가르침을 받은 이한우(1818~1881)가 제주를 노래한 '영주십경가' 가운데 '영실기암'이다. 영실이란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펼친 영산(靈山, 영축산)의 여래향실(室)을 닮은 골짜기라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이 이야기는 다음을 기약한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 說

'소통 · 포교' 조계종, 변화 기대한다

조계종을 향한 세간의 관심이 높다. 불교계 내부 여론은 이미 기대감으로 들썩이는 분위기다. 새롭게 출범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가 적극적인 소통의 장을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9월 28일 취임 첫날부터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광폭행보가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다.

첫 공식일정은 청년세대 포교간담회다. 청년들과 점심공양을 함께하며 소탈한 대화를 이어갔다. 자칫 긴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편안하게 풀어내는 역할도 진우 스님이 자처했다. 농담과 웃음이 오가는 가운데, 젊은 세대 포교의 나아갈 방향과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대적 변화에 발맞춘, 그리고 현대사회에 맞는 불교 포교의 새로운 장을 펼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소통으로 이어진 셈이다. 진우 스님은 구시대적 포교전략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다. 그리고 불교의 본질적인 역할에 포교전략을 대입했다. 바로 마음 치유, 힐링이다. 부처님 가르침 속에 이미 존재하는 가치가 현대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불자 인구 감소라는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이다.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과 신도단체 임원단 예방에도 '소통' '포교'는 핵심주제였다. 포교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역할이 강조됐고 이에 대한 의견을 소통으로써 교류하고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중앙종무기관 종무원들과도 만났다. 기조강연에서 종책기조에 대한 강연을 펼친 진우 스님은 공감을 묻고 책임감을 강조했으며, 종무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제37대 집행부의 출범 이후 행보는 남다른 측면이 있다. 소통을 통해 종책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는 원력을 모아간다는 점이 그렇다. 조계종의 변화가 기대되는 이유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에 부쳐

조계종 행자교육원의 역사와 교육변화 등을 망라한 백서인 〈행자 수계교육 30년사〉가 발간됐다. 1991년 8월 개원한 행자교육원의 30년 역사와 그 면면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는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단 내 기초 승가교육사를 정리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행자교육원은 조계종으로 출가한 모든 행자들이 반드시 거쳐야 할 첫 교육기관이다. 1991년 1기를 배출한 이래 2021년까지 61기가 행자교육원을 수료하고 사미·사미니가 돼 출가 수행자로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곳을 거친 인원만 지난 30년 동안 9795명이다.

〈행자 수계교육 30년사〉 발간은 현재는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진우 스님이 제8대 교육원장으로 활동하며 세운 원력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특히 진우 스님은 "수행의 첫 걸음인 종단 행자교육의 역사와 그간 노고를 아끼지 않은 강백·율사들에 대한 기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중앙기록관의 협조를 받아 보관 서류를 열람·기록하며 발간 작업을 진행해왔다. 출간 예정일은 지난 7월이었으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교열·수정 작업을 추가로 진행해 9월에 발간하게 됐다.

현재 한국불교는 출가 절벽을 맞이하고 있다. 나날이 출가자는 급감하고 있어서다. 탈종교화·무종교화로 나아가는 한국사회에서 출가자 수급은 한국불교의 당면과제다. 이번에 발간된 〈행자 수계교육 30년사〉는 향후 시대에 맞는 승가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다. 이 자료를 활용한 승가교육 관련 새로운 연구들이 발표되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구태서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광고국 (02)2004-8214, 8216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